

2011년 기독교영화제 케리그마 부문 대상 수상작

영화 '비창'을 되새기다

진원미

동욱, 민철, 순기, 유리, 주빈, 지현, 그리고 원미

작년 가을 이맘 때, 우리들은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에서 만났다. 단순히 미디어가 궁금해서 함께 한 사람도 있었고, 꿈을 향한 한 걸음으로 삼고자 아카데미를 찾은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이런 저런 이유로 모인 우리들은 4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지난 2월 아카데미를 졸업했다. 그리고 졸업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매년 여름 서울기독교영화제에서 단편영화 공모전이 열리니 졸업생들이 함께 참여해보라'는 조언을 들었다. 그때 그 한 마디가 우리 영화의 씨앗이었던 것 같다.

꼭 해야 할 이야기

서울기독교영화제 단편경선 케리그마 부문은 주어진 주제에 대한 설교 및 교회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는 5분길이 영상을 요구하고 있었다. 올해의 주제는 누가복음 10장 36절의 "누가 강도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였다. 영화'초대'의 모태가 된 생일파티 이야기, 엄마와 아이가 지하철에서 걸인을 만난 이야기 등 여러 소재가 후보선상에 올랐다. 그런데 소재를 결정하기

로 한 날, 민철오빠가 비장한 얼굴을 하고 나타났다.

"나, 꼭 하고 싶은 게 있다."

설교와 교육의 보조영상인 만큼, 영화 안에 해답보다는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는 게 오빠의 요지였다. 그리고 새터민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모두의 문제를 찾아 둘러보던 중, 새터민 문제를 다룬 신문기사를 마주쳤다고 얘기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이 시대의 '강도만난 자.' 새터민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아보자는 말에, 주위 새터민 친구들과 북한 선교에 뜻을 두고 있는 친구들이 떠올랐다. 그들은 무엇에 아파하고 있을까,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대중에게 전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내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할 이야기'였다.





나는 좋은 이웃이었나

우리 팀은 결국 두 작품을 준비하기로 하고, 사전 준비는 두 팀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민철오빠와 순기오빠와 나는 '비창' 팀을 맡았다. 세 사람 사이에서도 감독과 연출, 프로듀서로 역할 배분을 했다. 사실 영화에도 프로듀서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다. 시나리오 보강부터 장소·배우 섭외, 예산 활용, 촬영 현장까지 영화 제작의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것이라는 설명에 내 마음은 책임감으로 불타올랐다. 사전 준비단계에서 나는 주로 관련 자료 조사에 집중했다. 관련 잡지와 영상자료를 수집하고, 새터민 선배에게 인터뷰와 시나리오 점검을 부탁했다. 그 날 만남에서 나는 격 없이 지내는 사이인데도 쉽게 나눌 수 없었던, 선배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었다.

선배의 인생은 놀라웠다. 맛있는 것을 많이 먹는다는 말에 고향을 떠난 것,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극적으로 선교사님 부부를 만난 것,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한국에 오게 된 것,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삶, 나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곳에서 새터민이라 받았던 '냉소적 무관심'과 그로 인해 응어리진 상처를 보고, 나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내가 다니는 학교의 특성 상, 내 주위에는 다른 팀원들에 비해 유독 새터민 친구들이 많았다. 그러나 나는 지난 대학생할 3년 동안, 그것을 그리 특별한 경험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새터민 친구들의 이야기에 깊이 귀 기울인 적이 없었기 때문 아닐까 생각된다. 4학년이 되어서야, 그것도 '새터민'에 관한 영상을 제작하면서야, 옆에 있는 친구의 아픔에 관심 갖게 되었다는 것이 미안했다. 그래서 선배에게 사과했다.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자를 모르는 체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 내가 그들의 모습을 하고 있었음을 인정해야 했다. 혹시나 너무 극단적이지 않을까 염려되었던 시나리오를



보고, 선배는 '있을 수 있는 일'로 받아들였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앞으로는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겠다'는 다짐을 마음에 묻었다.

생명을 다루듯 정성으로 영화를 만들자

주인공이자 유일한 출연자인, 배우 강태욱 씨는 민철오빠의 소개로 섭외했다. 촬영 날 처음 만났을 때, 배우는 이미 새터민 노동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한 주간 시나리오를 닦는 내내, 이 분이 참여할지 고민 중이다. 시나리오를 받고 힘들어하고 있다. 기도하자는 등등의 소식을 전해들은 티였었는데 이렇게나 이렇게나 극에 몰두해주시는 것에 처음엔 감사하기만 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 오열하는 부분으로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갔을 때, 나는 감사함 이상의 뭉클함을 느껴야만 했다. '액션!' 신호와 함께, 실낱같은 희망이었던 어머니를 잃은 류성철을 정말로 만날 수 있었다. 그의 눈물을 보고, 꺾꺾대는 울음소리를 듣고, 그 아픔을 느끼면서, 성철에게 한없이 미안했다. '내가 뭐라고 있지도 않은 그를 만들어, 떨정한 어머니를 빼앗아 저렇게도 아프게 할까' 하는 생각에 어느새 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럴수록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단순한 열정 뿐 아니라, 생명을 다루듯 정성으로 제작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화의 이야기가 꿈틀꿈틀 다가가, 보는 자의 마음을 붙잡는 것을 내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이다.

서울에 물폭탄이 내리쳤던 7월 마지막 주, 우리는 그렇게 영화와 함께 보냈다. 우여곡절 끝에 작품을 제출하던 날, '공모를 했다'는 것이 우리에게겐 성공이라며 서로 축하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그 때 소리 없이 울컥했던 나를 보고서 민철오빠는 우리 팀이 잘 하고 있다는 확신을 했다고 한다.

본선에 진출하고 대상을 받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본선 진출 발표가 나던 날, 말로는 기대 안 한다고 했던 나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이 되도록 서울기독교영화제 홈페이지를 들락날락 거렸다. 그리고 영화 '초대'와 '비창' 두 편이 모두 본선에 진출한 것을 보고 너무 기뻐 거실을 마구 뛰어다녔다. 내일 학교에 안 가도 된다는 소식을 들은 꼬마보다도, 아마 한 뼘은 더 기뻐했던 것 같다. 나중에 '비창'이 대상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도 대상의 영예만큼 떨칠 거리지 못했던 것은, 본선 진출만으로도 이미 감격의 정점을 찍었기 때문이었다.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 꿈에도 희망을 주시는구나!'하는 감사함이 가장 컸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방송인을 소원해 왔는데도, 4년 전 정작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 곳은 신학대학교였다. 기독교교육을 공부하며 나의 꿈을 위해 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 방송국과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에 들어간 것, 그리고 '비록 지금은 여기 있어도, 내 반드시 방송인이 되겠다'라고 동네방네 소문내는 것뿐이었다. 내 꿈과 삶의 자리가 너무나 멀었기에, 이제는 '너 정말 방송일 해도 되겠다!'라며 격려해주는 주위 사람들의 말이 '그래 너 실컷 방송해보렴'하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다. 물론 '난 이제 무조건 성공이다!'라는 핑크빛 믿음이 생긴 것은 아니다. 다만 내 안에는, '좋은 미디어인이 되겠다'는 꿈이 평생을 걸기에 충분한 일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보고, 또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아는 지혜와 능력을 얻고 싶다. 이제 그 꿈을 위해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하겠노라고, 그동안 많은 도움과 조언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과 긴 글 읽어주신 여러분 앞에 약속드린다.



영화를 되풀이해서 보면 볼수록, 부족한 부분들만 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부끄러운 마음을 뒤로 하고, SNS에 영화를 게시하고 필요한 분들께 상영용 파일을 전하고 있다. 케리그마 부문에 공모한 이 영화의 본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이다. 설교나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메일로 요청해 주기를 바란다(watchup10@naver.com). *수상작은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홈페이지(cmca.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진원미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는 단순한 고백을 가지고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08학번으로 입학하였다. 3년간 여학생 생활관에 살며 친구들을 만났고, 기독교교육과 학교 방송국 P.B.S.에서 꿈을 찾았다. 졸업 후에는 꿈을 좇아 방송 일을 시작할 예정이다. 5-10년 동안 현장에서 미디어인의 소양을 쌓고, 신학대학원에 돌아와 목회를 준비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 시대를 한 사람 미디어인으로 살면서, 기뻐할 것에 기뻐하고 분노할 것에 분노하는 사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다.